

기증자 정주영 님

지난 2006년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면서 조혈모세포기증 의사를 밝히셨던 정주영 님. 현재 제빵사로 근무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숭고한 사랑의 실천에 감사드리며, 말초혈조혈모세포채취법으로 기증한 정주영 님의 기증과정을 밀착 취재해 보았습니다.

입원 1일차



입원병실(보통 기증자들은 1인실에 입원하게 된다)

입원 한 달 전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 기증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 한 정주영 님. 입원 3일 전부터 맞은 조혈모세포성장촉진주사 때문인지 허리에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진통제를 먹으니 괜찮다 하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입원했다.

보통 기증자들은 오후 4시~6시 사이에 입원하지만 정주영 님은 근무지 사정상 조금 늦게 입원하게 되었다. 낮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혈압, 혈액검사 등 몇 가지 간단한 검사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한 정주영 님.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입원할 때 같이 와주어 더욱 행복한 모습이였다.

기자 : 드디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기증자 :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환자복까지 입고 있으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기자 : 처음 본인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기증자 : 생각도 못했었는데 굉장히 기뻐요. 경제적인 선행은 여유가 없어서 못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덕에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글서글한 혼남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정주영 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입원 첫날의 시간은 지나갔다.



입원 2일차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 1일차)

이튿날, 다시 찾아간 병실에서 정주영 님은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하여 전해질을 높이는 수액을 맞고 있었다. 채집하러 들어가기 전 기증자의 전해질 수치가 낮아져 있으면 전해질을 높이는 수액을 맞는다고 한다.

기자: 식사는 잘 하셨나요?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기증자: 워낙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스타일이라 맛있게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게 되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기증자: 그냥 텅텅하네요. 헌혈 하듯이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잠시 담소를 나눈 뒤 오전 9시 30분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하여 조혈모세포채집실로 이동하였다.



조혈모세포채집실



조혈모세포채집 장비



조혈모세포채집 동의서 작성

병실에서의 여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채집실에 도착한 정주영 님은 긴장이 된 듯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다. 채집실에 도착한 정주영 님은 채집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채집동의서를 작성했다.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은 양팔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쪽 팔의 혈관을 통해 나온 혈액은 기계를 통과하게 되고, 여기서 조혈모세포만을 채취한 뒤 나머지 혈액성분들은 다른 팔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채집 중에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며 수분 섭취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채집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채집 중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팔 부위가 저리는 증상으로 힘들어했지만 채집이 끝난 뒤에 정주영 님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어주었다.



이날 채집한 206mL의 조혈모세포는 수혜자가 있는 이식센터로 인계되고 수혜자는 바로 이식을 받게 된다.



입원 3일차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집 2일차)

일반적으로 말초혈조혈모세포의 채집은 2일 동안 하게 된다. 그러나 이식센터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충분한 조혈모세포가 채집된 경우 1일차에서 채집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정주영 님은 2일차 채집을 진행하게 되었다.



1일차보다 조금 이른 9시 30분 경 2일차 채집이 시작되었다.



2일차 채집은 예상보다 일찍 끝나게 되었다. 채집하는 중간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채집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2일차에 채집한 조혈모세포의 양은 126mL. 정주영 님은 채집을 중단해도 수혜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며 오히려 수혜자를 더 걱정해 주었다.



2일차 채집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기증자. 담당교수님께서 방문하시어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였다.

이 날은 일 때문에 못 오셨던 어머니께서 시간을 내어 아들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오셨다.

기자 : 아드님이 기증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이 되셨지요?

어머니 : 솔직히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지만 내 아들이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을 믿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동의해줬어요.



조혈모세포기증에 이어 사후에 장기기증 신청까지 마친 상태인 기증자. 어머니도 사후의 장기기증이나 시신기증을 생각하고 계시다니 그야말로 모전자전(母傳子傳)이 아닐 수 없다.

기자 : 내일 퇴원하는데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증자 : 퇴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증 신청을 많이 권유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기증을 하게 되면서 직장동료 두 분이 기증희망서약에 동참해주셨다.)

기자 : 정주영 님의 조혈모세포를 받게 될 수혜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기증자 : 제가 듣기로는 완치율이 70% 정도 된다고 하던데 저의 조혈모세포를 받게 될 수혜자분께서 꼭 완치되어 건강한 삶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입원 4일차 (퇴원일)

오전 10:30분경, 정주영 님의 퇴원을 돕기 위하여 병실을 방문했다. 2일 동안의 채집으로 힘들 법도 했지만 답답한 병원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인지 정주영 님의 표정은 한결 여유로웠다.

기자 : 입원 기간 중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기증자 : 대단한 일을 한 마냥 잘 해주셔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 입원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기증자 :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요. 첫째 날 채집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 여자친구가 소변통을 대줬는데 잘 못해서 소변이 좀 흘렸어요. 그때 제가 화를 냈었는데 그 일이 조금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네요.

기자 : 정주영 님과 같이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기증희망자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기증자 : 3박 4일이란 입원기간과 단 몇 시간의 불편함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전 11시 30분경, 퇴원 안내 및 퇴원 후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간단한 설문까지 마친 정주영 님에게 협회에서 마련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보통 기증자들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여 퇴원하지만 정주영 님은 입원 시 가져온 스쿠터를 이용하여 퇴원했다. 아마도 스쿠터를 이용하여 퇴원하는 몇 안 되는 기증자 중의 하나일 것 같다. 이렇게 짧은 3박 4일의 조혈모세포기증도 어느덧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 이식 받은 환자로부터의 재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기꺼이 응하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정주영 님은 건강하게 퇴원수속을 마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3박 4일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정주영 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정주영 님의 숭고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